



한국인에게 익숙한 단어

durian 두리안

열대과일의 일종이다.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맛과 매력을 가진 과일이다. 과일의 향으로 불리기도 하는 두리안은 한국 유영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durian은 인도네시아어인데 dur는 '기시'라는 뜻이다. 두리안 껌질의 모양이 기시로 뒤덮인 것 같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rambutan 랑부딴

람부딴도 열대과일의 일종이다. 한국에서 뷔페의 과일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중식당에서 디저트로도 종종 제공되고 있다. 껌질은 뺨길고 머리카락(rambul)과 같은 것이 나 있어서 랑부딴이라 불린다.

istana 이스파나

이스파나는 '궁전'이란 뜻인데, 한국에서는 자동차 이름으로 유명하다.

orang hutan 오랑우딴

오랑우딴은 직역하면 '숲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다. 침팬지와 비슷한 동물의 이름으로 오랑우딴은 인도네시아어이다.

kopi luwak 고삐루왁

루왁(luwak)이라는 사향고양이의 분비물에서 채취한 커피콩으로 만든 커피다. 인도네시아산 루왁 커피는 매우 상급의 품질이며 고가의 커피다.

품사명

명사	kata benda 까다 븐다	nomina 노미나
동사	kata kerja 까따 꺼르자	verba 브로바
형용사	kata sifat 까따 시fat	adjektif 아제피프
대명사	kata ganti 까따 긴띠	pronomina 브로노미나
의문사	kata tanya 까따 마나	interrogatif 인뜨로가립
부사	kata keterangan 까따 고프랑안	adverbial 어드버브리얼
전치사	kata depan 까따 드쁜	preposisi 브로뽀시시
관계사, 접속사	kata penghubung 까따 펭후붕	konjungsi 콘중시
수사	kata bilangan 까따 빌강안	numeralia 누마렐리아
접사	imbuhan 임부한	afiksasi 아픽사시



PELAJARAN

01

Salam

인사

- 인사하기, 안부 묻기
- 인칭대명사와 문장 구조
- 인사 활용
- 인도네시아 열대과일



1

L (Laki-laki 남자) P (Perempuan 여자)

P Selamat pagi, Pak Kim!

슬리앗 퍼기 빅 깁

L Selamat pagi, Ibu Santi!

슬리앗 퍼기 이부 산띠

- selamat 좋은, 평화로운
- pagi 아침
- Pak (남성에 대한 호칭)
~씨, ~선생님
- Ibu (여성에 대한 호칭)
~부인, ~여사, 어머니
- ayah 아버지

P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L 안녕하세요, 산띠 부인!



★ (오전 10시 전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Selamat pagi.

Selamat pagi를 줄여서 간단히 Pagi라고 하기도 한다.

★ 나의 어머니 ibu saya

당신의 아버지 bapak Anda (= ayah Anda)



Pak(Bapak의 줄임말)과 Ibu는 영어의 Mr.와 Ms.와 같은 표현이다. 즉, Pak Kim은 Mr. Kim이고, Ibu Santi는 Mrs. Santi이다. Pak(Bapak)은 '~씨, ~선생님, 아저씨, (직급 대신 사용하여) 사장님, 부장님' 등으로 해석된다. Ibu는 bu라고 줄여 사용하기도 하며 '~여사, ~부인' 정도로 해석된다. 보통 기혼자에게 불리는 호칭이지만 미혼자에게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존경의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Pak과 Ibu는 이름이나 성에 불어 사용하고, 호칭으로 쓸 때는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대문자로 표기한다. Bapak과 ibu는 '아버지, 어머니'란 뜻도 있는데, 이때는 문장의 맨 앞에 올 때만 대문자로 쓰면 된다.

2

P Selamat siang, Mas Agus!

슬리앗 시앙 마스 아구스

L Selamat siang, Mbak Dewi! Apa kabar?

슬리앗 시앙 음박 데웨 아빠 까바루?

P Baik-baik saja. Terima kasih. Mas Agus?

비익-비익 사자 뜨리마 끼시 마스 아구스?

L Saya juga baik. Terima kasih.

사야 주가 비익 뜨리마 끼시

- siang 점심, 낮
- Mbak (젊은 여성에 대한 호칭)
~양, 아가씨
- Mas (젊은 남성에 대한 호칭)
~씨, ~군, 청년
- apa 무엇
- kabar 안부
- baik 좋은, 좋다
- saya 저
- juga 역시, 또한
- seperti ~와 같은
- saja 그냥
- biasa 보통

P 안녕하세요, 아구스 씨!

L 안녕하세요, 데웨 양! 잘 지내세요?

P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아구스 씨는요?

L 저도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 (낮 11시~3시경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Selamat siang.

Selamat siang을 줄여서 간단히 Siang이라고 하기도 한다.



★ 어떻게 지내세요? / 안녕하세요? Apa kabar?

Apa kabar와 Selamat siang은 모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건네는 인사말이다. 차이점은 Apa kabar는 안부를 묻는 "안녕하세요(잘 지내세요)?"/이므로 대답을 요하는 표현이고 Selamat siang은 특별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똑같이 Selamat siang이라고 답하면 된다. Selamat pagi, Selamat malam도 마찬가지다.

★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 대단히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banyak.

상대방이 먼저 안부를 묻는 경우, Terima kasih.(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한 다음에 Bagaimana kabar Pak Kim?(김 선생님은 어때세요?), Anda?(당신은요?) 혹은 Kamu?(너는?)라는 말로 상대방의 안부를 되묻는 것이 예의다.

★ 아구스 씨 Mas Agus / 데웨 양 Mbak Dewi

Mas와 Mbak은 인도네시아 자와(Jawa) 지역에서 사용하는 호칭이다. 수도인 Jakarta(자카르타)는 자와 지역에 해당하므로 위의 호칭이 자주 쓰인다.

★ 잘 지내요. Baik. / Baik-baik saja.

★ 늘 똑같아요. Seperti biasa.



PERCAKAPAN DASAR

3

L Selamat sore, Yuri.

슬리맛 소례 유리

P Sore, Pak. Bagaimana kabar Bapak?

소례 박 바게마나 끼바르 바박?

L Baik-baik saja. Makasih. Apa kabar, Yuri?

비익~비익 시자 마끼시 아빠 끼바르 유리?

P Saya juga baik. Makasih ya, pak.

사야 주기 바익 마끼시 야 박

·sore 오후
·bagaimana 어떠한, 어떻게



★ (오후 3시~5시경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Selamat sore.

Selamat sore를 줄여서 Sore라고도 한다.

★ 고마워(요)! Makasih!

정말 고마워(요)! Makasihbanyak!

Makasih는 Terima kasih의 줄임말이다. 부드럽고 친근한 뉴앙스를 주기 위해 구어체에서는 Makasih라고 줄여 쓰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ya(특별히 해석되지 않음)를 붙여 Makasih ya라고 하면 매우 친근한 표현이 된다. 줄임말이기 때문에 Terima kasih 보다는 객식을 덜 차리는 표현이고, 공식 석상에서는 지양해야 할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꼭 반말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까운 손윗사람에게도 친근함을 주는 Makasih ya~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어떻게 지내세요? Bagaimana kabar Bapak?

Bagaimana를 빨리 발음하면 [바게마나]처럼 소리 난다. 줄임말은 gimana[기마나]이다.



4

P Selamat malam, Mas Agus!

슬리맛 말맛 마스 아구스

L Selamat malam, Ibu Park!

슬리맛 말맛 이부 박

·malam 밤

P 안녕하세요, 아구스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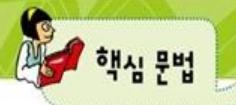
L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 (저녁 6시 이후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Selamat malam.

Selamat malam을 줄여서 Malam이라고 인사한다.





Di Jalan 길에서

P Selamat malam, Pak Kim!

슬리맛 말밤 빽 김

L Selamat malam, Mbak Dewi. Apa kabar?

슬리맛 말밤 음박 대워 아빠 까마르?

P Baik-baik saja. Terima kasih. Kabar Bapak bagaimana?

바익-바익 시자 드리마 까시 까비르 비嬖 바게마나?

L Saya juga baik. Terima kasih ya. Sampai bertemu lagi!

사야 주가 바익 드리마 까시 야. 삼빡이 버르뜨무 라기!!

P Ya, jumpa lagi, Pak!

야. 즘빡 라기 빽!

P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L 안녕하세요. 대워 양. 잘 지내요?

P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L 나도 잘 지내요. 고마워요. 그럼 또 만나요!

P 네. 또 봐요!

1 인칭대명사

인칭	단수	복수
1인칭	saya (자) 시야 aku (나) 아꾸	kita (우리 청자 모두 포함) 끼타 kami (우리 청자 일부 불포함) 끼미
2인칭	Anda (당신) 안다 kamu (너), engkau (너, 자네) 까무 용까우	Anda sekalian (당신들) 안다 스겔리안 = Anda semua (당신들 모두) 안다 스무아 kamu sekalian, kalian (너희들) 까무 스끌리안, 칼리안 = kamu semua (너희들 모두) 까무 스무아
3인칭	dia (그, 그녀) 디아 beliau (그분) 블리아우	mereka (그들) 메레카

인도네시아어의 인칭대명사에는 존칭과 비존칭의 표현이 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는 단어와 친한 사이에게 쓰는 단어들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단어를 다 외우는 게 어렵다면 *saya*, *Anda*와 같은 존칭을 먼저 익히는 것이 좋다.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언어가 익숙해진 후에도 계속 반말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 더욱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존칭어를 잘 사용함으로써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언어도 습관이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언어를 잘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1인칭 인칭대명사는 *saya*와 *aku*가 있다. *Saya*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다. 또한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경우에는 *saya*를 쓴다. *Aku*는 나이가 같거나 더 어린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다.



1

Presiden SBY Pimpin Upacara Peringatan HUT ke-68 RI

JAKARTA – Upacara peringatan Hari Ulang Tahun Kemerdekaan ke-68 RI pada 17 Agustus 2013 di Istana Merdeka Jakarta dimulai tepat pukul 10.00 WIB ditandai dentuman meriam sebanyak 17 kali.

- upacara 행사
- peringatan 기념
- tepat 정확히, 정확하다
- dentuman meriam 대포 소리
- presiden 대통령
- SBY(Susilo Bambang Yudhoyono)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약자
- damping 가까운, 친한, 일정한
- ibu negara 영부인
- mimbar 강단, 설교단
- teks Proklamasi 선언문
- pameran 전시회
- skuadron 비행대대
- pesawat tempur 전투기
- manuver 기동, 기동훈련

Presiden SBY didampingi Ibu Negara Ani Yudhoyono, beserta Wakil Presiden Boediono dan Ibu Herawati Boediono berada di mimbar utama, sementara Ketua Dewan Perwakilan Daerah (DPD RI) Irman Gusman membacakan teks Proklamasi dalam upacara ini.

Upacara peringatan Hari Ulang Tahun Kemerdekaan ke-68 RI ini juga diwarnai pameran udara satu skuadron pesawat tempur jenis F 16 dan Sukhoi yang melakukan manuver terbang rendah di kawasan silang Monas Jakarta.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의 68번째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2013년 8월 17일에 자카르타 머드레까궁에서 10시 정각에 17번의 축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영부인 아니 유도요노 여사, 그리고 부디오노 부통령과 해라와미 부디오노 여사는 메인 강단에 있었고, 이르만 구스만 지역 대표 협의회 의장이 이 행사의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인도네시아의 68번째 독립기념일을 기리는 이 행사는 F16과 슈코이 전투기 비행대대가 자카르타 모나스 지역의 낮은 창공에서 기동훈련을 보여 주는 에어쇼로 물들었다.

2

- Balap karung 자루달리기
- lomba 대회, 놀이
- garis 선
- akhir 끝
- kritikan 비난, 비판
- hura-hura 기쁜, 즐거운
- apresiasi 인정하다, 칭송하다
- pendatang 방문객

Balap karung adalah salah satu lomba tradisional yang populer pada hari kemerdekaan Indonesia. Sejumlah peserta diwajibkan memasukkan bagian bawah badannya ke dalam karung kemudian berlari sampai ke garis akhir. Meskipun sering mendapat kritikan karena dianggap memacu semangat persaingan yang tidak sehat, balap karung tetap banyak ditemui, begitu pula lomba panjat pinang, sandal bakiak, dan makan kerupuk.

Lomba balap karung juga diapresiasi oleh pendatang dari luar negeri dengan cara langsung terlibat dalam perlombaan ini

자루달리기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하는 유명한 전통 놀이 중의 하나이다. 모든 참가자들은 다리를 자루에 넣고 마지막 지점까지 달려야 한다. 지나친 경쟁심을 키운다고 여기자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자루달리기는 여전히 많이 볼 수 있는 놀이다. 빠낭나무 오르기, 바까악 샌들신고 달리기, 꼬루ჭ 먹기 등의 놀이도 있다.



Photo by Aleksandar Todorovi / Shutterstock.com



Photo by Luisa Puccini / Shutterstock.com